

제주방언의 담화표지어 ‘양’에 대한 연구

양용준(제주대학교 / 교수)

Yang, Yong-Joon. 2019. “A Study of Discourse Marker *yang* in the Jeju Dialect.”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89:109-2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meaning and usage of discourse marker, *yang* in the Jeju dialect. The discourse marker *yang* in the Jeju dialect is used in three major ways. First, *yang* is used in vocative meaning. It is used in a similar way to *Hello*, *Hey*, and *Hi* in English. Second, *yang* is used to attract cautionary attention. However, *jeoyang* is a discourse marker that is used when a listener is older than a speaker. Third, *yang* is used to ask a question. Especially, when *yang* is used to raise the end, it is able to accurately communicate the meaning. Discourse markers appear in many ways, such as *yang*, *jeoyang*, and *yi* in the Jeju dialect. However, it can be confirmed through various examples that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in meaning and usage. In order to preserve the Jeju dialect in the future, it should be used appropriately and accurately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Jeju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담화표지어(discourse marker), 제주방언(Jeju dialect), 호격의미(vocative meaning), 양(yang), 저양(jeoyang)

1. 서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표준어가 있고 또한 지역어인 방언이 존재한다. 나라의 크기가 클수록 그런 방언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심지어 중국과 같

은 경우는 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어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언어들에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것은 세계화가 되고 지구촌 시대에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하겠지만 그래도 보존해야 할 언어는 보존해야 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임무이기도 하다. 단 한사람이라도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라진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UNESCO에서는 세계적으로 현존하는 언어를 잘 발굴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요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방언도 사라져 가는 언어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또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기도 하다. 제주방언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기도 하고 또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다음 <표 1>을 통해서 표준어와 제주방언의 위치를 보도록 하자.

<표 1> 한국어(표준어)와 제주방언의 위치

한국어 (Korean Language)				
경기방언	경상방언	전라방언	함경방언	제주방언
경기어 (×)	경상어 (×)	전라어 (×)	함경어 (×)	제주어 (?)
경기도말	경상도말	전라도말	함경도말	제주말

위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제주방언은 표준어의 하위부류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다. 필자는 제주어라는 용어보다 제주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지역적인 특색과 의미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제주어(Jeju Language)라고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제주방언(Jeju Dialect)이라고 하고 있다. 조태린(2014)은 제주방언, 제주도방언, 제주사투리, 탐라어, 제주말 그리고 최근에 제주어로 용어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방언을 보존하고 또 유네스코 지정 멸종위기의 언어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어를 통일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표준어인 한국어가 있고, 각 지방에 따라 방언들, 서울방언, 경기방언, 경상방언, 충청방언, 전라방언, 함경방언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여러 방언들이 모두 서울어, 경기어, 경상어, 전라어, 함경어라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유네스코에서 멸종위기의 언어로 분류하고 있는 제주방언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담화 표지어인 ‘양’의 쓰임²⁾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제주방언의 담화표지어 ‘양’의 쓰임과 빈도

2.1 제주지역별 방언의 차이

제주도가 섬이라서 제주지역을 아주 좁은 곳으로 간주하고 단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70~80년대까지만 해도 군대에서 하는 농담 섞인 말로 제주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서 공을 차면 바다에 빠지느냐고 하면서 이야기 하는 군인들이 많이 있었다. 물론 농담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만큼 제주도를 작고 조그마한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제주도에 왔다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러다보니 제주지역도 크게 동서지역과 산남과 산북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동서는 성산과 고산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고 산남과 산북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 지역들에서는 각 지역의 방언, 즉 제주방언 속의 지역 방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 (1)을 보도록 하자.

- (1) a. 애야, 창고에 강 골갱이 가정 오라.
 (애야, 창고에 가서 호미를 가지고 오라.)
 b. 애야, 정지에 강 골각지 가정 오라.
 (애야, 부엌에 가서 호미를 가지고 오라.)

2) 담화표지어인 ‘양’을 제주방언에서는 간투사로 다룬다. 최현배(1971), 남기삼과 고영근(1993), 서정수(1994), 신지연(1988) 그리고 현평효(1991) 등은 한국어의 감탄사와 간투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다. 현평효는 제주방언에서 담화표지어인 ‘양’ ‘예, 야’는 간투표현기능(응답, 반문)을 하는 것이라고 언급을 하였으나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문순덕(2014:147)은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위 (1)에서 쓰인 예문은 모두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나 제주도 동부지역과 산남인 서귀포 지역에서는 ‘호미’를 ‘골각지’라고 표현하고, 서부지역과 산북인 제주시에서는 ‘호미’를 ‘골갱이’라고 표현한다. 이처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라 하더라도 제주지역 내에서도 다르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이런 제주방언속에서 지역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예를 (2)에서 보도록 하자.

- (2) a. 창수는 어제 고양이가 중이를 잡는 것을 봤다.
 (창수는 어제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을 봤다.)
 b. 철수는 쟁이를 아주 하영 무서워한다.
 (철수는 쥐를 아주 많이 무서워한다.)

위 (2a)와 (2b)에서도 ‘중이’와 ‘쟁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쥐’를 의미하는 말이다. ‘쥐’를 ‘중이’라고 하는 것은 서부지역과 제주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경우이다. 반면에 동부지역과 산남인 서귀포에서는 ‘쥐’를 ‘쟁이’라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 (1)과 (2)의 경우는 어휘자체에서 나타나는 방언의 차이라 할 수 있다.

3.2 제주지역별 사용의 차이

방언은 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라고 한다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언어생활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다음 예문 (3)을 보도록 하자.

- (3) a. 양, 성님 어디 감수광?
 (예, 형님 어디 가십니까?)
 b. 성님, 어디 감수광, 양?
 (형님 어디 가십니까? 예?)

위 (3)의 예에서는 담화표지어인 ‘양’의 쓰임에 따라 다르게 의미가 전달된다는 것이다. (3a)인 경우 담화표지어인 ‘양’이 문두에 쓰이면, 호격의 의미로 주의

를 갖도록 부르는 경우라 하겠다. 반면에 (3b)인 경우는 ‘양’이 문미에 쓰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동의를 구하거나 의문의 뜻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런 담화표지어인 ‘양’의 쓰임은 제주지역 어느 곳에서나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서나 산남과 산북 구별 없이 사용하고 또한 제주지역에 사는 사람들 특히 원주민들은 모두 이해를 한다.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제주지역에서도 시골이라 할 수 있는 읍면지역으로 가야 비로소 젊은이들이 간혹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제주방언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3. 제주방언의 담화표지어 ‘양’에 대한 분석

3.1 담화표지어 ‘양’의 호격적인 의미와 쓰임

담화표지어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낱말 형태로 홀로 쓰여서 문장이 성립되기도 한다. 또한 청자가 화자의 물음에 대해서 보충적인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문장이고 이에 의미를 보충하면 표현이 보다 분명해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

제주방언에서 담화표지어인 ‘양’이 단독으로 발화되더라도 담화상에서 대화자들끼리 충분히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상생활에서 화자는 청자를 부르고 싶을 때 적절한 호격표현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화자가 적당한 호격표현 즉, 이름이나, 직책으로 부르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울 경우에 호격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담화표지어인 것이다.

다음 예문 (4)를 보도록 하자.

- (4) a. 양, 어디 감수광?
 (예, 어디 가십니까?)
 b. 양, 삼촌 집이 잇수광?
 (예, 삼촌 집에 계십니까?)

- c. 양, 누가 이수광?
(예, 누구 계십니까?)

위 예문 (4a)에서 담화표지어인 ‘양’은 화자와 청자가 서로 잘 아는 사이일 때 자연스럽게 발화되는 표현이다.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마주 친 상황에서는 사용 빈도가 적지만 화자가 청자를 봤는데 청자가 못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발화되는 표현이다. ‘양’이라고 화자가 발화하고 청자가 이 소리를 듣게 되면 자신을 부르는 말로 인지하고 얼굴을 화자에게 돌리게 되고 마주보게 된다. 여기서 담화표지어인 ‘양’은 화자가 청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담화의 상황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화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청자를 불러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것이다. (4b)에서는 화자가 잘 알고 있는 집이나 가게,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가능한 발화표현이다. 물론 제주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남녀를 불문하고 삼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위 (4b)의 예문처럼 발화한 경우에는 누군가 왔다는 인기척의 표시이면서 화자는 청자인 자신의 찾고 있는 사람의 존재를 물어보는 표현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담화표지어인 ‘양’이 사용은 화자와 청자의 거리를 좁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장면 전환의 효과도 있다. 또한 제주방언에서는 담화표지어인 ‘양’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삼촌 집이 이수광?’을 발화할 수 있지만 담화표지어인 ‘양’을 사용한 것은 청자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려는 배려의 마음씨도 담겨있는 발화표현인 것이다.

다음 예문 (5)를 보도록 하자.

- (5) a. 양, 말 좀 물어쿠다.
(예, 말씀 좀 문졌습니다.)
b. 양, 말 좀 물어켜.
(예, 말 좀 문졌습니다.)
c. 양, 길 좀 물어보켜.
(예, 길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 (5)의 예문에는 모두 담화표지어가 쓰였다. (5a)와 (5b)에서는 ‘양’이 쓰였고, (5c)에서는 ‘야’가 쓰였다. (5a)와 (5c)는 정문인데 (5b)는 비문이다. (5a)인 경우는 화자와 청자는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표현이다. 또한, 화자

가 특정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즉, 화자는 청자를 통해서 신정보(new information)를 얻고자 할 때 적절한 발화표현이다. 제주방언에서 ‘양’이라는 담화표지어는 체면(face)을 살려주는 효과를 낼 수도 있는 표현이다. (5a)와 같이 발화할 때 화자는 청자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렇다고 적절하게 불러 세워서 말을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 ‘양’이라는 담화표지어를 사용하면 청자를 불러 세우는 효과와 또한 청자는 부른 이유와 또한 물음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자는 청자에 대한 배려의 표현이기도 하다.

만약 (5a)에서 화자가 청자를 부르는 담화표지어인 ‘양’을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한다면 청자는 거부감 심지어는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게 된다. 그렇다면 담화표지어인 ‘양’은 화자와 청자의 사이의 어떤 친밀한 관계 여부를 떠나서 대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5a)인 경우는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받아들인다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5b)는 비문으로 담화표지어인 ‘양’은 일반적으로 손윗사람에게 하거나 아니면 일면식이 없는 즉, 화자와 청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제주방언에서 일반적인 용법이다. (5b)에서 담화표지어인 ‘양’을 사용하면서 손아랫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발화한다는 것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양’을 발화했다면 적어도 공손하거나 정중성을 띤 표현의 발화는 아니라도 손아랫사람에게 대하는 것처럼 발화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비문으로 처리가 된 경우이다. (5c)에서는 손아랫사람에게 화자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과 같은 담화표지어에 속하는 ‘야’를 사용했는데, ‘야’는 ‘애’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화자가 청자에게 공손하거나 정중하게 발화하지 않아도 옳은 문장이 된다. (5b)의 발화와는 반대로 ‘야’라는 담화표지어를 사용하고 정중하고 공손한 표현의 발화를 한다면 이 또한 제주방언에서는 비문이 된다. ‘야’라는 담화표지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잘 아는 사이이고, 또한 화자가 청자보다 나이가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발화되는 표현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자로 하여금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5c)와 같은 발화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서로 잘 알고 있지 않는 사이일지라도 제주방언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경우이다. 다만 화자가 청자보다 나이가 많아야 한다는 것이 전체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주방언이라 하더라도 담화표지어인 ‘양’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담화표지어인 ‘야’는 낯선 사람에게는 거의 사용

하지 않으며 다만, 나이가 많은 경우에 손아랫사람을 부를 때 가끔 사용하기도 한다.

다음 예문 (6)을 보도록 하자.

- (6) a. 양, 이디 출레도 좀 줘서.
 (예, 여기 반찬도 좀 주세요.)
 b. 양, 여기 몬닥허영 얼마파?
 (예, 여기 모두 합쳐서 얼마예요?)

위 (6a)의 경우는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발화로 손님이 주인을 부르는 경우로 표준어인 ‘저(요), 저기(요)’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경우이다. (6b)의 경우도 음식점이나 마트 등에서 손님이 주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발화 형태이다. 호격의 기능을 하고 있는 담화표지어인 ‘양’은 화자가 누군가 즉 화자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고, 화자가 청자인 누군가로 하여금 불러 세운 후에 자신의 의도하는 바나 목적을 말하려는 의지가 드러나는 발화 표현이다.

위 (6)의 예에서처럼 담화표지어인 ‘양’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연결 고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예문 (7)을 보도록 하자.

- (7) a. 양, 삼촌 훈장 잔치가 언제렌 했수광?
 (예, 삼촌 훈장잔치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b. 양, 가의 신랑이 누구렌 했수광?
 (예, 그 아이 신랑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c. 양, 혹시 몇 시에 차 오는지 알아지쿠광?
 (예, 혹시 몇 시에 차 오는지 아십니까?)

위 (7a)의 예문은 화자와 청자가 서로 알고 있으며, 또한 화자가 청자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에 사용하는 발화의 표현이다. (7b)의 경우에는 화자와 청자가 서로 안면이 있지만 얼른 적당하게 표현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경우나 청자의 이름을 부르기가 어색할 경우에 사용하는 발화의 표현이다. (7c)의 경우에도 화자와 청자가 서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 알지 못하지만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발화의 표현이다.

제주방언의 담화표지어인 ‘양’은 ‘야’와 유사하게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 둘의 사용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는 나이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신분의 차이에도 해당될 수 있다.

3.2 담화표지어 ‘양’의 발화상의 의미와 쓰임

담화표지어인 ‘양’은 호격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제주방언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발화상의 버릇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양’이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저’라는 대명사와 함께 사용된다는 것이다. 즉, ‘저양’이라고 하는 것이다.

제주방언에서 담화표지어에 해당하는 ‘저’도 있는데 이는 다음 (8)과 같이 단독으로 쓸 수 있다.

- (8) a. 저, 철수 집이 있수광?
 (저기, 철수 집에 있습니까?)
 b. 저, 차비 줌 빌려주쿠과?
 (저기요, 차비 줌 빌려주시겠습니까?)

위 (8)의 예문에 쓰인 담화표지어인 ‘저’는 ‘양’과 유사한 호격적인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사용함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러운 발화의 표현이다. 즉, 이 경우에는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하는데 있어서 머뭇거리거나 어려워하는 경우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저’는 ‘양’과 달리 손윗사람이나 손아랫사람이나 모두에게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모두 사용이 가능한 발화 표현의 담화표지어이다.

그런가 하면 화자가 얼른 하고자 하는 말이 생각이 나지 않을 경우나 또는 이와는 달리 화자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청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표현하게 되는 발화에 해당한다.

안주호(1992: 30)는 이런 경우의 발화를 ‘시발표지’라고 주장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나 어떤 말을 선뜻 꺼내기가 어려울 때도 발화되는 표지라고 하였다.

다음 예문 (9)를 보도록 하자.

- (9) a. 저양, 밥 먹었수광.
 (저예, 밥 먹었습니까?)
 b. 저양, 가이 1등 했수게.
 (저예, 그 아이 1등 했어요.)

위 (9a)의 예문에서 ‘저양’은 제주방언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은 담화표지어이다. (9a)에서 화자는 청자의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도록 부르는 말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생략하고 ‘밥 먹었수광’이라고만 말하게 되면 어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난처함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담화표지어가 바로 ‘저양’이라 하는 것이다. (9b)에서도 마찬가지로 (9a)의 용법을 준수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9a)보다 (9b)는 서로 알고 있는데 특히 화자가 청자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발화표현이다. 이런 ‘저양’과 같은 용법으로 쓰이는 제주방언의 담화표지어에는 ‘저이’가 있다.

다음 예문 (10)을 보도록 하자.

- (10) a. 저이, 이디 잇게.
 (저기, 여기 있자.)
 b. 저이, 난 밥허커메 넌 출레 만들라.
 (저기, 나는 밥을 할 테니 너는 반찬을 만들어라.)

위 (10a)에 쓰인 예문은 친구끼리 아니면 화자가 청자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 발화할 수 있는 표현이다. 이 경우에 단순하게 ‘이디 잇게’라고만 해도 의사전달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화자와 청자의 친밀감이 다소 떨어지는 효과를 보게 된다. 왜냐하면 너무 사무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무적이거나 직설적인 어색한 표현의 발화를 피하고 친밀감을 유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발화표현이다.

위 (9~10)의 예문에서 쓰인 담화표지어인 ‘저양, 저이’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실제 거리 간격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의 환기 시키고 화자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기능으로 쓰이는 경우이다. 그런가하면 화자가 청자를 부르거나 또는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화자가 머뭇거리면서 혼잣말처럼 쓰이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화자의 입장에서 청자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 주면서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내 말 좀 들어 달라’는 부탁하는 투의 심리상태가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제주방언에서는 (9~10)에 쓰인 담화표지어는 무의식중에 습관적으로 발화하는 표현이기도 한다.

다음 (11)의 예문을 보도록 하자.

- (11) a. 저양, 반장 택은 어디우파?
 (저예, 반장 택은 어디입니까?)
 b. 저이, 들어 왕 놀당 가라.
 (저이, 들어와서 놀다가 가라.)

위 (11)에 쓰인 담화표지어인 ‘저양, 저이’는 화자와 청자가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나온 발화 표현이다. (11a)의 경우에 화자는 청자에게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추면서 화자 자신의 원하는 대답을 얻으려고 할 때 가능한 발화 표현이다. 그리고 ‘저양, 저이’라는 담화표지어는 화자의 물음에 대해서 청자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어도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발화 표현이기도 하다. 이 부분은 호격적인 의미로 쓰이는 담화표지어와는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발화상으로 쓰이는 담화표지어인 ‘저양, 저이’ 등은 화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청자와의 거리를 좁히려는 의도로 쓰일 수도 있고,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 이런 말을 청자에게 해도 되는지 확인해 본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화자와 청자가 처음으로 만나서 화자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버릇처럼 말하는 경우는 사적이기도 하지만 친밀감의 표시인 경우라고 보아도 된다.

3.3 담화표지어 ‘양’의 되묻기 표현

담화표지어인 ‘양’은 호격적인 의미로, ‘저양, 저이’는 발화상의 쓰임으로 나타난다. 이외에도 ‘양, 이’ 등은 억양(intonation)에 의해서 되물음의 표현으로 쓰이는 담화표지어이다.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예, 응’에 억양이 있으면 되묻기 표현인데 이는 표준어와 유사하다.

다음 (12)의 예문을 보도록 하자.

- (12) a. 양? 뭐엔 굴암수과?
 (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b. 이? 뭐엔 굴암다?
 (인? 뭐라 말하고 있니?)

위 (12)의 예문은 화자의 물음에 대해서 청자가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되물으면서 확인하는 경우의 발화 표현이다. 그런가 하면 청자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을 화자가 말하니까 짜증이 나서 되묻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발화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화자의 발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청자가 일부러 ‘너는 지금 무슨 쓸데없는 말을 아느냐?’의 뜻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청자가 화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것처럼 일부러 표현할 때도 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화자가 말한 발화가 청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뜻밖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때 청자의 반응으로 쓰일 수도 있다.

되묻기 표현으로 쓰이는 담화표지어인 ‘양, 이’는 화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해서 당황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 청자의 입장에서는 발화 내용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즉 질문하는 내용이 신정보일 때는 즉각적인 답을 해 줄 수 없으므로 화자에게 되묻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4. 결론

제주방언에서 담화표지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양’을 중심으로 쓰임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제주방언에서는 ‘이, 저양, 저이’도 함께 담화표지어에 해당하는 말들이다. 이에 대해서도 일부 다루었는데 본 논문의 결정적인 핵심은 ‘양’이라는 담화표지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제주방언의 담화표지어인 ‘양’은 크게 세 가지의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

첫째, ‘양’은 호격적인 의미로 쓰인다는 것이다. 영어의 *Hello, hey, Hi*와 유사한 용법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최근에 제주지역은 국제자유도시이고 세계적인 관광지이다 보니 제주방언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는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담화표지어인 ‘양’은 제주시보다 시골지역에서 그리고 젊은이들보

다 다소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당연한 일이라는 하지만 담화표지어인 '양'이 쓰임이 호격적인 의미로 쓰인다는 것이다.

둘째, '양'은 발화상의 주의를 끌기 위한 의미로 쓰인다는 것이다.

이런 발화상의 쓰임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양'은 '저양'이나 '저이'처럼 사용해서 화자는 청자로 하여금 주의를 끌게 하려는 의도로 쓴다는 것이다. 다만, '저양'은 화자보다 청자가 손윗사람인 경우에 흔히 사용하고 또한 화자와 청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쓰이는 담화표지어인 것이다. 반면에 '저이'는 화자가 청자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와 또한 화자와 청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에 흔히 쓰이는 담화표지어이다.

셋째, '양'은 되묻기의 쓰임으로 쓴다는 것이다. 특히 이 경우는 '양(↗)'처럼 조금 길게 그리고 끝을 올리면서 발화해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화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경우이거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이거나, 아니면 확인하기 위한 의미로 쓴다는 것이다. 이런 용법으로 쓰이는 제주방언의 담화표지어는 '이'가 있는데 이것은 화자가 청자보다 윗사람이거나 친한 친구 사이에 흔히 쓸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주방언은 한국어의 한 부류이면서 제주지역의 언어인 것이지만 표준어인 한국어와 대등한 위치의 언어는 아니다. 그러므로 용어의 통일을 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제주어보다는 제주방언 아니면 제주말이라고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담화표지어는 '양, 저양, 이, 저이'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경우에 쓰임과 의미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고 있음을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였다. 앞으로 제주방언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적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영봉(Kang, Young-Bong). 2013. 「제주사회 통합과 제주어(The Unity of Jeju's Society and the Jeju Dialect)」. 『탐라문화(Tamla Munwha)』 43:39-65.
- 강정희(Kang, Jeong-Hui). 2005. 『제주방언 형태변화 연구(A Study of Formal Change in Jeju Dialect)』. 서울: 역락(Seoul: Youkrack).
- 강정희(Kang, Jeong-Hui). 2012. 「소멸위기의 제주방언 보전을 위한 방언 활성화 방

- 안(A Suggestion for Preserving the Endangered Jeju Dialect). 『영주어문(Yeongjueomun)』 23:185-205.
- 남기심·고영근(Nam, Ki-Shim, and Young-Gun Kho). 1993. 『표준국어문법론(Standard Korean Grammar's Theory)』. 서울: 탑(Seoul: Top).
- 문순덕(Moon, Soon-Deok). 2005a. 「제주방언 높임말 침사의 담화 기능: ‘미씀, 양, 예’를 중심으로(The Discourse Function of Honorific Particles in Jeju Dialect with Special Reference to *massum, yang, and ye-*)」. 『언어연구(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20.3:71-87.
- 문순덕(Moon, Soon-Deok). 2005b. 「제주방언의 간투 표현(Interjectional Expressions in Jeju Dialect)」. 『한글(Hangeul)』 269:161-88.
- 문순덕(Moon, Soon-Deok). 2014. 『제주방언의 그 맛과 멋(The Taste and Style of Jeju Dialect)』. 서울: 보고사(Seoul: Bogosa).
- 서정수(Seo, Jeong-Soo). 1994. 『국어문법(Korean Grammar)』. 서울: 뿌리깊은나무(Seoul: Ppuligipeun Namu).
- 성낙수(Seong, Nak-Soo). 1992. 『제주도 방언의 통사론적 연구(Syntactic Study of Jeju Dialect)』. 서울: 계명문화사(Seoul: Gaemyungmoonhwas).
- 신지연(Shin, Ji-Yeon). 1988. 『국어 간투사의 위상 연구(A Study of Phase in Korean Interjection)』. 석사학위논문(MA thesis), 서울대학교(Seoul National University).
- 안주호(Ahm, Joo-Hoh). 1992. 「한국어 담화표지 분석(A Study of Discourse Markers in Korean)」.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17:21-38.
- 조태린(Cho, Tae-Rin). 2014. 「제주어와 제주방언, 이름의 정치학(Jeju Language and Jeju Dialect, Political Linguistics of Naming)」. 『어문학(Eomunhak)』 126:117-35.
- 최현배(Choi, Hyun-Bae). 1971. 『우리말본(Woorimalbon)』. 서울: 정음사(Seoul: Jeongumsa).
- 현평효(Hyun, Pyeong-Hyo). 1991. 「제주도방언 존대법의 특징(Characteristics of Respect Method in Jeju Dialect)」. 『새국어생활(New Korean Life)』 1.3:83-93.
- Barron, Anne. 2003. *Acquisition in Interlanguage Pragma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 Blakemore, Diane. 2002. *Relevance and Linguistic Meaning: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Discourse Mark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akemore, Diane. 2004. "Discourse Markers." In *The Handbook of Pragmatics*, edited by Laurence R. Horn and Gregory Ward, 221-40. Malden, MA: Blackwell.

- Chomsky, Noam. 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 Chomsky, Noam.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 MIT Press.
- Cruse, David Alan. 2004. *Meaning i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emantics and Pragma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ey, Jacob L. 2001. *Pragmatics: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 Levinson, Stephen C. 201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양용준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usyang2@daum.net

논문접수일	2019년 5월 17일
심사완료일	2019년 6월 7일
게재확정일	2019년 6월 27일